

동물복지 활성화 연구와 인증제 개선안 모색

- 농촌진흥청, 27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학술 토론회
- 제도 운영의 문제점·보완 방법 등 논의…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7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산란계(2012)를 시작으로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준, 참여 중인 농가가 441개에 불과해 시설 투자비 증가,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는 정부기관과 대학,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물복지 인증 농가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보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증 과정에 필요한 설치 비용 지원, 효율적인 유통 방안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아울러, 강연 시간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김두환 교수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 △더불어행복한농장 김문조 대표 △청솔원 정진후 대표가 국내 동물복지 인증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동물복지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양돈 농장과 산란계 농장의 운영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국내 동물복지 향상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발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농장동물복지 연구회 토론회 행사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책임자	팀 장	황성수 (063-238-7050)
		담당자	연구관	전중환 (063-238-7051)

< 목 적 >

- 세계 동물복지 동향에 부합하는 동물복지 인증기준 개선 및 보완
- 동물복지 관련한 국내외 이슈 대응 및 축산의 발전방안 모색
- 관련 전문가들 간의 소통을 통한 동물복지 연구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일 시: 2023.10.27.(금), 14:30~16:30(예정)
- 장 소: 축산과학원 5층 강당(전북 완주 이서 콩쥐팥쥐로 1500)
- 대 상: 유관기관 담당자(농식품부, 검역본부), 대학,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 관련 전문가 등
- 주요안건 :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 세부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개회	14:30~14:4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환영사 ▪ 축사 	사회자 임기순 원장 학회 회장
주제강연	14:45~15:00('15)	▪ 동물복지 인증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김두환 교수 (경상대)
	15:00~15:15('15)	▪ 동물복지 인식 조사 및 가이드라인 분석	김찬호 연구사
	15:15~15:30('15)	▪ 동물복지 양돈 농장 운영 현황	김문조 대표 (더불어행복한농장)
	15:30~15:45('15)	▪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운영 현황	정진후 대표 (청솔원)
토론	15:45~16:25('40)	▪ 종합토론	황성수 팀장
폐회	16:25~16:30('5)	▪ 폐회	

* 사회자 :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연구관